

‘도로침수·단수’ 휴일 날벼락... 시민 피해 속출

최악가뭄에 정수장 고장 ‘물난리’ 인근도로 물바다·자갈 등 뒤덮여 굴착기 등 장비 동원에도 ‘역부족’ 서·남·광산구 갑작스런 단수 불편

광주 남구에 소재한 덕남정수장의 원인 불명의 밸브 고장으로 광주지역 대부분이 단수를 겪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시민 피해가 속출했다.

관계 당국은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광주시민 상당수가 불편 호소와 함께 “극심한 가뭄 속에 시민들에게는 물을 아껴 쓰라고 하더니 시설은 관리·점검조차 하지 않느냐”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12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덕남정수장 정수지 유출 밸브에 이상이 감지됐다. 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기 위해 개방돼 있어야 할 밸브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닫히면서 수도물 공급 경로가 차단된 것이다. 상수도 본부는 곧바로 수리를 시도했지만 밸브 구동기가 침수됨에 따라 실패했다. 이 탓에 배수지로 보내지지 못한 물들이 도로까지 넘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덕남정수사업소 사고 현장에는 유출밸브가 고장난 정수지에서 터져 나온 물이 인근 도로까지 팔팔 흘러넘치고 있었다. 침수된 도로는 자갈과 토사 등으로 뒤덮여 일반 차량은 드나들 수조차 없었다. 미처 상황을 모른 채 이곳 도로로 진입 하던 차량들은 흡사 ‘홍수’가 난 것과 같은 풍경을 보고 다급하게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를 돌리기를 반복했다.

관계자들은 굴착기로 도로변의 큰 돌덩이와 토사를 옮기고 이물질로 막힌 배수



12일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도물 범람 사고가 발생해 빗고을노인건강타운 주차장과 인근 도로가 물바다를 이뤘다. 김양배 기자

로를 삼으로 파내며 각종 인력과 중장비를 총동원해 도로 정비에 나섰지만,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양의 물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흑여 도로를 가득 채운 물이 인도까지 넘어올까 포대 수십 자루가 도로변에 세워지기도 했다.

경찰·소방 당국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속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빗고을전남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해 방문객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경찰 무전에는 ‘빗고을전남대병원 환자 가족 차량입니다’ 등의 다급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경찰은 우회경로를 안내하는 등 환자를 태운 차량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택시를 타고 가족 병문안을 온 김채희(52)씨는 “택시가 도로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걸어 올라오는데 도로가 물바다가 돼 있어 깜짝 놀랐다.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흑여 위급환자를 태운 차량이 오면 어찌나 싫다”며 “빨리 병원에 가서 가족(환자)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애타는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도로를 통제하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흑

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빗고을노인건강타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역시 주차장 일부에 물이 다량 유입되면서 정비에 인력이 투입되는 모습이었다.

소식을 듣고 정비 작업을 위해 휴일에 나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정모(57)씨는 “도로가 잠겨 위급한 상황이라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다급히 복구에서부터 왔다.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상황을 살피러 온 주민 윤재호(79)씨는 “갑자기 집 앞 도로가 침수됐다길래 놀라서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직접 보려고 장화까지 챙겨 신고 왔다”면서 “물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는 물 절약하라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설을 미리 관리·점검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 흐려나온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태의 여파는 ‘단수’로까지 이어졌다. 덕남정수장은 광주시의 식수원인 주암댐으로부터 취수된 물을 정수하는데, 이곳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서·남·광산구 전역에 이른다.

복구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상수도본부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오후 1시부터 단수에 대비할 것을 안내했지만, 시민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각 자치구에는 단수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각종 대중이용 시설, 주말 장사에 들어간 상가들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상수도본부는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 고장 난 밸브 개방에 초점을 맞춰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물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이날 5시 기준, 5시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단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상수도본부는 △1.8ℓ 병물 1980박스 비상급수에 이용 △배수지 유입 전 이도 작업 시행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비 기자

20대, 집에 불 질러 함께 살던 어머니 숨져

20대 남성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9분께 북구 문흥동 4층 상가주택 내 3층에서 불이 났

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29)씨의 어머니(53)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 역시 신체 곳곳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중태 상태로, 생명이 위독하다.

재산 피해는 실내 70㎡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량서 추산 2100여 만원이 발생했다.

화재는 아들 A씨의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이 건물 수색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에게

‘극단적 선택’ 예고 뒤 건물 불길 조현병 호소 아들도 생명 위독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준비는 마쳤다’고 전화했으며,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조현병 등을 호소하며 이전부터 전문상담기관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화재 직전 아들 A씨가 상담사

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정황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재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의 방화 가능성을 높게 염두하고 있다”며 “A씨 상태가 위독하다. 건강이 일부 호전되면 따로 소환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